■ 칠레 규모 8.8 강진…300여명 사망 이재민 200만명

# "마치 폭격 맞은 듯" 15층 건물 폭삭

## 공항·항구 등 전면 폐쇄…태평양 연안국 쓰나미 경보

지난달 27일(현지시간) 강도 8.8 규모의 강진으로 칠레 2대 도시 콘셉시온에서는 15층 짜리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려 폭격을 맞은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칠레를 덮친 규모 8.8의 강진으로 최소 300명 이상이 숨지고 150만채의 주택이 파손되는 등 피해 규모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강진 이후 태평양 연안으로 이동 중인 쓰나미는 일본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다행히 큰 피해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피해 속출**=칠레 재난국의 카르멘 페르난데스 국장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300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앞서 미첼 바첼레트 칠레 대통령은 지진 피해자가 200만명, 파손된 가옥도 150만채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지진은 취약 시간대인 새벽 3시34분에 발생하면서 피해 규모가 커졌다. 특히 진앙지로부터 115㎞ 떨어진 칠레 2대 도시 콘셉시온에서 15층짜리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등 폭격을 맞은 듯한 모습이었다. 진앙지로부터 325km 떨어진 수도 산티아고에서는 지하철 운행이 중단됐으며 고가도로가 일부 무너지면서 교통이 마비됐다. 치얀에 있는 교도소에서는 지진으로 화재가 발생한 틈을 타 수감자 209명이 탈옥했다고 국영 TV가 보도했다.

산티아고 국제공항도 지진 직후 폐쇄 조치된 가운데, 공항 청사의 승객 이동로가 파괴되고 건물 문이 부서졌으며 유리창도 곳곳에서 깨져나갔다.

산티아고에서 120㎞ 떨어진 발파라이소 소재 칠레 주요 항구에도 폐쇄 명령이 내려졌으며, 세계 최대 구리 생산 업체인 코델코도 광산 두 곳을 폐쇄했다.

지진은 세계 1위 구리 생산국이자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강국 칠레 경제에 150억~300억 달러에 이르는 피해를 줄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칠레 국내총생산(GDP)의 10~15%에 해당한다.

◇**각국에 지진 공포 엄습**=강진 이후에도 규모 6.9를 포함해 5.0 이상의 여진만 50차례 이상 발생하고 있어 칠레 현지를 공포 분위기로 몰아놓고 있다.

이웃 국가인 아르헨티나에서도 칠레 강진 몇 시간 뒤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2명이 숨졌다고 현지 의사가 전했다.

28일 새벽에는 파키스탄 북부 지역과 아프가니스탄 카불 지역에서 규모 5.7의 지진이 감지됐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쓰나미 강타**=지진 여파로 발생한 쓰나미는 칠레를 덮친 이후 50여개 이상의 태평양 연안국으로 퍼져 나갔다. 지진 발생 직후 칠레 해안에서 700㎞ 떨어진 태평양 해상의 로빈슨 크루소 섬에 쓰나미가 덮쳐 5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실종됐다.

로빈슨 크루소 섬은 유적을 포함해 약 20~30%가 파괴됐다고 목격자들은 전했다. 이어 태평양으로 퍼져 나가기 시작한 쓰나미는 뉴질랜드 동부 해안에 높이 1.5m의 파도를 일으켰으며 하와이와 호주 등으로 이동했지만 큰 피해를 주지 않았다.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도 0.8m의 파도가 감지되는데 그쳐 경보가 해제됐다. /연합뉴스

## 칠레 강진 여파…日 '쓰나미 공포' 현실로

### 도호쿠 해안 1.2m 물결 덮쳐

### 19개 현 54만세대에 '대피령'

칠레 강진의 여파로 일본 해안에 1m를 넘는 쓰나미(지진해일)가 몰려온 가운데 전문가들이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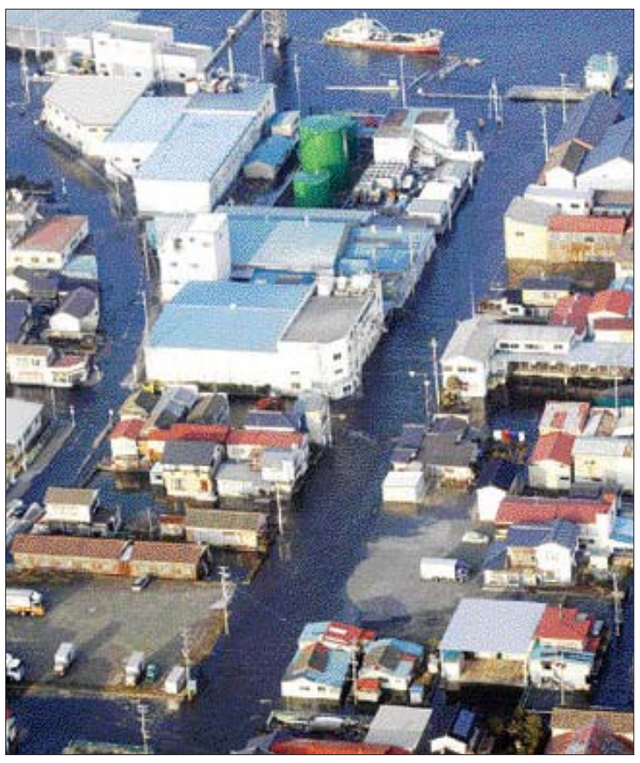
지난달 28일 오후 3시49분 도호쿠 지방 이와테현 구지항에서 높이 1.2m의 물결이 관측됐다.

이에 앞서 낮 12시43분 오가사와라 제도의 미나미토리섬에서 0.1m 높이의 쓰나미가 처음으로 관측된 것을 시작으로 오후 3시까지 홋카이도·도호쿠·간토 지방과 이즈·오가사와라 제도 등지에서 0.1~0.5m의 쓰나미가 관측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물결은 높아졌다.

일본 기상청은 이날 오전 9시33분을 기해 아오모리·이와테·미야기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에 대형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나머지 태평양 연안 지역에는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고, 동해 일부 연안(홋카이도)에도 쓰나미 주의보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태평양 연안 일대 19개 현의 54만 세대(오후 2시 현재)에 위험 지역을 벗어나라는 지시·권고가 내려졌다고 NHK가 집계했다. /연합뉴스


칠레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로 28일 일본 북부 미야기현의 게세누마 지역의 주택가가 바닷물에 잠겨 주민들이 긴급대피했다. /연합뉴스

## 보험사도 안 믿은 '대기록'

### 英 보험사, 김연아에 보험금 100만달러 지급

김연아를 후원하는 한국의 은행들이 영국 보험사에 가입한 보험금 100만달러(11억6천만원 상당)를 받아 김연아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온라인판이 2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김연아의 한국 스폰서 은행들이 김연아가 지난해 자신이 세운 세계기록 207점을 깨고 올림픽 여자 피겨스케이팅에서 우승하면 100만달러의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영국의 보험사 로이즈에 보험을 들었다는 것이다.

결국, 김연아가 여자 피겨스케이팅에서 합계 228.56점이라는 경이적인 점수로 세계 기록을 갈아치우자 로이즈는 한국의 은행들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게 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이어 김연아가 총 11번의 점프를 완벽하게 뛰며 아사다 마오를 2위로 밀어내고 승리를 거머쥐었다고 소개하고 "골든걸 김연아는 그냥 완벽했다"고 극찬했다. /연합뉴스

## "6자회담 3, 4월 개최 가능성"

### 외교 당국자 북·미 추가 대화시 곧바로 개최

지난 15개월간 공전됐던 북핵 6자회담이 관련국들의 의견조율 결과 다음 달 또는 늦어도 4월 중 개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달 초 북·중 연쇄 교차협의에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의지가 조건부이긴 하지만 확인됐고, 북·중 협의를 바탕으로 의장국 중국의 '모종의 제안'에 대해 한·미 양국이 원칙적인 수용의사를 피력하는 등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관련국간 협의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양국은 북한이 6자회담 복귀 조건의 하나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미 추가대화'와 관련, 6자회담 재개를 전제로 이를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달 28일 "한·미가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6자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이를 위해 북한의 6자회담 복귀로 직접적으로 연결될 경우 북미 추가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방미 중인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와 관련, 지난달 27일(현지시각) 워싱턴 주재 한국특파원들과 만나 "최근의 정황으로 볼 때 조만간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며 "시기로 본다면 3, 4월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끝나는 3월 중순 이후부터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리는 4월 중순 사이에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3통문제 다룰 '남북실무접촉' 내일 개성서 개최

남북은 지난달 28일 통행·통신·통관 등 '3통'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해 온 군사실무회담을 형식을 바꿔 남북실무접촉 방식으로 다음 달 2일 개성공업지구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이날 "남북이 군사실무회담 개최를 위한 절충을 벌인 결과 2일 오전 10시 개성공업지구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개최키로 합의했다"며 "우리측은 이강우 통일부 과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5명의 대표가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수석대표가 통일부에서 나가는 만큼 회담은 군사실무회담이 아니라 개성공단 3통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실무접촉"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측은 개성공단에 있는 기업이 불편을 겪고 있는 3통문제를 조속히 해결한다는 입장에서 북측이 주장하는 개성 개최를 수용하되 양측 대표단은 각자 편리한대로 구성하자고 오늘 오전 북측에 통보했고, 북측도 별다른 이견없이 3통 문제 협의를 위해 경협사무소로 나올 것이라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